

협동과제 수행에서 범주화와 성과정보가 내집단 편파감소에 미치는 영향

최 광 선 · 안 상 수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집단의 편파 감소에 미치는 협동의 효과를 집단 경계의 현출성을 조작한 집단 범주화 유형과, 과제수행 결과의 성과유형 사이에서 검증해 보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협동적 과제에서의 편파감소의 효과는 집단 경계의 현출성 약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협동의 효과 결정에 과제 수행의 성과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집단의 상위 범주화와 하위 범주화를 비교해 볼때 상위 범주화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따른 내·외집단 평가에 차이가 작았던 반면, 하위 범주화에서는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가 집단간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집단간 편파(intergroup bias)는 여러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보통 상대집단이나 외집단의 구성원보다 자기 속한 집단이나 내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89; Worchel, Andreoli, & Folger, 1977; Hensley & Duval, 1976). 또한 보수분배(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와 집단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Worchel, Lind, & Kaufman, 1975) 및 사적 관심(Rabbie & Horwitz, 1969)에 있어서 내집단 구성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 때문에 집단간 편파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내집단 편파(in-group bias) 또는 외집단 차별(out-group discrimination)이라고도 한다.

집단 관계에서 집단편파나 차별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들은 상이한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Allport, 1954; Campbell, 1965; Slavin, 1985; Sherif, Harvey, White, Hood & Sherif, 1961; Tajfel, 1970; Crocker & Luhtanen, 1990). 첫째 모형은 현실적 갈등이론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적 모형이다(Campbell, 1965). 이 모형의 핵심적 가정은 집단편파나 차별이 제한된 자원을 두고 집단끼리 경쟁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내집단의 결속을 유지하고 외집단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두가지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능주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Miller & Brewer, 1986). 둘째 모형은 C.I.C. 모형(social categorization-social identity-social comparison model)으로(Tajfel, 1982), 사회인지적 흐름을 통하여 집단간 편파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즉, 1) 집단간 편파현상은 경쟁과 같은 현실적 갈등 없이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단순히 구별하는 범주화만으로도 일어난다(Billig & Tajfel, 1973; Locksley, Ortiz, & Hepburn,

1980; Tajfel, 1970;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2) 집단간 편파 현상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더 유리하게 평가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Tajfel & Turner, 1986)이나 “긍정적인 집단특이성(positive group distinctiveness)”을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생긴다(Turner, 1985). 3) 집단간의 협동, 경쟁 및 유사성 등이 내·외집단 구분의 현저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ewer, 1979).

Worchel(1986)은 두 집단이 서로간의 협조를 철회하며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중지하므로써 집단간의 편파는 생성되며, 이러한 접촉 부족은 집단간 차별이나 갈등,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집단간 현상을 더욱더 고착화시킨다고 하였다. 예컨대, 집단간 편파의 결과는 지역감정, 인종차별, 종교분쟁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과 관련되므로, 집단편파나 갈등의 생성과정에 대한 논의들은 집단관계 개선방안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할 것이다.

집단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편파나 갈등관계에 있는 두 집단은 접촉을 통하여 그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김진국, 1987), 두 집단의 리더나 대표자가 어떤 의견일지에 이를 수 있다면 두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져 집단간 편파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협동을 통한 집단관계는 집단간 상호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뢰관계를 증진시키며, 집단적 과제의 성취에 더 큰 만족을 느끼게 하여 유사성을 지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Sherif et al., 1961; Worchel, 1986; Worchel et al., 1977).

그 중에서도 집단간 협동은 집단간 갈등이나 편파를 줄이는 수단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Allport, 1954; 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90; Stephan, 1985; Worchel, 1986). 근본적으로 집단간 협동이란 한 집단의 이득이 다른 한 집단에도 이득이 되는 조건을 말한다. 또한 집단간 협동은 집단끼리 서로 통합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접촉(contact)도 포함한다. 집단간 협동이 집단간 편파나 갈등을 감소시킨다는 Allport(1954)의 연구 이래로, 집단간 편파감소나 갈등의 해소에서 협동의 효과를 결정하는 조건들은 무엇이며, 협동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편파나 갈등을 감소시키느냐에 관심이 두어져

왔다.

Sherif 등(1961)은 유명한 Robbers Cave 공원의 현장실험을 통하여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집단간 관계에서 협동의 효과를 검증하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들 연구자들은 경쟁을 배제한 협동적 상호작용을 도입하여 집단간 편파를 줄이려 하였다. Sherif 등은 집단간의 경쟁적 상호작용이 편파적인 태도 및 행동의 직접적인 매개인이라고 보았다. 즉 집단구성원들 간의 협동적인 상호의존성을 구조화함으로써 집단간 편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Brewer(1979)는 두 집단간의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은 구조화된 협동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버린다고 주장하였다.

Lott와 Lott(1965)는 협동적 노력이 성공적일 때는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 타집단성원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나, 실패일 때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다. Worchel 등(1977)은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협동적 과제수행에서 성공과 실패 및 집단간의 경쟁을 조작했다. 그 결과 강화이론의 설명과는 달리, 경쟁이 도입되지 않았던 조건에서는 협동적 노력의 실패도 외집단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두 집단간에 이전의 경쟁관계와는 상관없이 실패는 외집단에 대한 호감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강화이론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최근 집단간 관계를 재검토한 많은 연구들(Brewer, 1979; Messick & Mackie, 1989; Stephan, 1985; Tajfel, 1982; Turner, 1985; Wilder, 1986b)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집단편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협동의 효과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모형은 C.I. C. 모형의 흐름에 입각한 사회적 정체감이론과 사회적 범주화이론을 들 수 있다(Tajfel, 1970; Turner, 1985). 이 모형은 집단간 편파는 사람들을 개별집단으로 범주화시킴으로써 생성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범주화 경계가 뚜렷할수록 집단간 편파는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Deschamps & Brown, 1983; Worchel, 1978). 따라서 협동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집단간 경계의 현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Wilder(1986a)의 주장에 따르면 협동은 집단간 경계의 현출성을 줄이는데 기여하여 집단간 수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간의 협동이 집단편파나 갈등해소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Worchel(1986)은 그 의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협동의 효과를 결정하는 조건들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협동이 편파나 갈등을 감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협동의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최근 딜레마 상황에서 집단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연구들이 협동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Kramer와 Brewer(1984)의 연구에 의하면, 공동 자원을 사용하는 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별개의 두 집단구성원이라는 하위범주가 강조되었을 때보다는 상위의 공통적인 정체감이 두드러졌을 때, 다시 말해서 상위범주가 강조되었을 때 협동적인 선택을 더 많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Kramer(1988)는 피험자들이 하위범주가 강조되었을 때 보다 공통적인 멤버십이 강조되었을 때 덜 방어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간 편파의 감소는 협동과제 수행결과에서 오는 호감도, 유사성 지각, 협동성 지각으로 설명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Gaertner, 1990).

이러한 결과들은 협동의 효과가 집단경계의 현출성 약화라는 사회범주화이론과 사회적 정체감이론의 기본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경계의 현출성을 조작하려는 기존의 연구들이 외집단 구성원의 개성화를 통한 집단경계의 약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상위범주(one group) 또는 두 집단 구성원의 공통적인 멤버십을 강조함으로써 집단 현출성 약화 조작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동의 효과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정체감이론과 사회범주화이론의 흐름과 일치하는 상위범주화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다. 이와 함께 협동의 효과가 앞서 진술했던 강화이론에서의 설명과 현출성 약화에 초점을 둔 이론과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먼저 협동이 개재된 상황에서 집단경계의 현출성 조작에 따른 상위범주화와 하위범주화라는 범주화 유형과, 성공 또는 실패라는 성과유형 사이에서 내·외집단의 편파감소에 미치는 협동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1: 협동적 과제를 수행하는 내·외집단간의 호감도 편파는 상위범주 조건에서 보다 하위범주 조건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 내·외집단간의 유사성의 지각은 실패조건에서 보다 성공적 협동조건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3: 내·외집단간 협동성 지각은 성공조건외 상위범주 조건에서 실패조건외 하위범주 조건에서 보다 더 클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199명으로, 4개의 실험조건에 무선적으로 배치되었다(6인 집단). 지원자 199명 중 서로 친교가 있는 19명을 제외한 180명을 피험자로 하였다.

설 계

2(집단유형)×2(성과유형)×2(내·외집단)의 혼합요인설계로서 집단유형과 성과유형은 피험자간 변인이며 내·외집단은 피험자내 변인이다.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호감도, 유사성 지각, 협동성 지각을 측정하는 Gaertner척도(1989, 7문항, 9점척도)를 피험자에게 평정케하여 집단간의 편파의 정도를 잰다.

절 차

제 1단계: 피험자가 도착하면, 3인 집단을 두개의 따로 떨어진 실험실에 안내하였다. 그 집단으로 하여금 상호작용 바로 전까지 실험에서 함께 참여하는 다른 집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였다. 세 명의 피험자가 배정된 실험실에 들어 갔을때 그들은 실험자로부터 서로 다른 색깔의 명찰(빨강, 남색, 노랑; 파랑, 녹색, 보라)을 배정받았다. 실험실에는 직사각형 책상과 세 개의 의자 그리고 피험자들로 하여금 실험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위한 무비카메라가 눈에 잘 띄이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실험자는 세 사람을 자리에 앉도록 하고 눈에 잘 띄도록 옷깃에 명찰을 달게 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는 "이 연구가 산업조직에서 소작업 집단의 효율성과 작업 수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며, 열방에서는 무비카메라를 통해서 전문분석요원이 전체 의사결정과정을 모니터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분석 내용과 여러분의 수행결과를 함께 분석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곧 이어서 실험자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집단명칭을 창안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서 각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칭을 창안하게 한 것은 성원들의 집단인식을 높히려는데 있었다(Deutch, 1973; Gaertner et al., 1990).

집단명칭을 창안하는데 3분을 준 후, 피험자들에게 첫번째 과제를 알려 주었다. 과제의 내용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은행고객의 결정속성분석'(박남석, 1991)에서 뽑은 7개의 문안들로 각 피험자는 자신을 위기에 처한 지방은행의 기획실 직원으로 상상하고, 이 문안들을 독창성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서, 2분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또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독창성 서열을 바탕으로 그 집단을 대표하는 통합안을 자유토론을 거쳐 만들도록 지시하고 5분간의 시간을 주었다.

합의안이 마련되고 난 후, 피험자들은 동일한 과제를 토의했던 다른 집단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을 실험자로부터 들었다.

제 2단계: 본 연구자는 이 단계에서 독립변인 조작을 하였다. 즉 두 개의 3인 집단을 통합하여 6인 집단으로 만들어, 좌석배치, 집단명칭 그리고 집단 유니폼을 달리하여 집단의 범주화를 유도하였다.

상위범주화: 실험자는 두 집단의 성원들이 보다 큰 방에 안내되면 직사각형의 책상에 앉도록 지시하였다. 처음의 명찰과 일치하는 색깔의 명찰이 놓여 있었다(ABABAB). 또한 책상위에는 감청색의 깔판이 깔려 있으며 통합된 새로운 집단을 나타내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실험자는 집단공동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감청색 티셔츠를 입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자는 두 집단이 통합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집단 명칭을 나타내는 명찰을 원래의 3인 집단명찰과 교체하여 달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자는 "____(3인집단)과 ____ (3인집단)은 ____ (6인집단명)으로 통합되었다"라고 알려주며 그때부터 새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위범주화: 두 집단이 보다 큰 방에 안내되면 깔판 색깔이 다른 좌석배치(AAABBB)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도록 했는데, 한 집단은 감청색티셔츠를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연두색티셔츠를 입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통합에 대한 언급없이 이전의 두 집단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상위집단 조건에서의 실험자는 "여러분은 이제 통합된 6인 집단 ____입니다. 이전의 각 3인 집단에서 얻은 합의안을 6분간 자유롭게 토의하여 하나의 통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하위집단 조건에서는 "여러분은 ____ (3인집단)과 ____ (3인집단)입니다. 자유롭게 6분간 토의를 하여 하나의 통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각각 반반씩 나누어 성공조건과 실패조건에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성공조건: 실험자는 "지금까지의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통합안 외에 여러분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새로운 개선방안을 하나 더 창안해 보십시오. 모니터 분석과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과제 수행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면 현금 30000원과 교환할 수 있는 추천권을 그 집단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실험자는 모니터 분석 결과 및 객관적 기준과 비교 하러 가는 채하고 10분간의 토의 결과를 갖고 실험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3분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객관적 기준에 도달했으므로 추천권을 배당하겠다고 하였다.

실패조건: 성공조건과 같은 절차였으나, 실험자는 "이 집단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추천권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에게 Gaertner척도를 평정케 하였다.

결 과

호감도 검증결과

집단의 범주화유형, 협동의 성과유형 그리고 내·외 집단에 따른 각 조건별 호감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호감도 평정결과를 변량분석해 보면, 집단의 범주유형에 주효과가 있었다[F(1, 176)=6.57, p<.05]. 즉 상위범주조건(X₁=6.51)은 하위범주조건(X₂=6.10)보다 호감도 평정이 더 높았다. 그리고 협동의 성과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1, 176)=2.27, n.s], 내·외집단에는 주효과가 있었다[F(1, 176)=235.38, p<.01]. 내·외집단의 호감평정치와 집단의 범주화유형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F

<표 1> 각 조건별 호감도의 평균치(SD)

| 성과\집단 | 상 위 집 단 | | 하 위 집 단 | |
|-------|------------|------------|------------|------------|
| | 내집단 | 외집단 | 내집단 | 외집단 |
| 성공 | 6.94(1.33) | 6.47(1.23) | 6.80(1.26) | 5.48(1.10) |
| 실패 | 6.81(1.07) | 5.83(1.19) | 7.07(0.94) | 5.07(1.20) |

(1, 176)=37.38,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위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집단($X_1=6.87$)과 외집단($X_2=6.14$)간의 호감도 편파($X_1-X_2=0.73$)가 적었으나, 하위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집단($X_1=6.93$)과 외집단($X_2=5.25$)간의 편파($X_1-X_2=1.65$)는 컸다. 또한 내·외집단과 성과유형간에도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1, 176) 15.64, $p < .01$]. 이 상호작용효과는 성공 조건에서 내집단($X_1=6.87$)과 외집단($X_2=6.0$)간의 호감도 편파($X_1-X_2=0.87$)가 적었으나, 실패조건에서는 내집단($X_1=6.93$)과 외집단($X_2=5.47$)간의 편파($X_1-X_2=1.46$)는 컸다.

유사도 지각 검증결과

집단의 범주화 유형, 협동의 성과유형 그리고 내·외집단에 따른 각 조건별 유사도 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유사도 평정결과를 변량분석해 보면, 집단의 범주화 유형과 성과유형에는 주효과가 없었으나 내·외집단에

대한 유사성 평정에는 주효과가 있었다[F(1, 176)=189.45, $p > .01$]. 이는 내·외집단간의 유사성 지각에는 집단범주화유형과 성과유형과는 달리 상당한 편파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내·외집단과 성과유형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1, 176)=10.64, $p > .01$]. 성공적 협동조건에서의 내집단($X_1=6.24$)과 외집단($X_2=5.36$)간의 유사성 지각의 편파($X_1-X_2=0.99$)는 실패 조건에서의 내집단($X_1=6.33$)과 외집단($X_2=4.89$)간의 편파($X_1-X_2=1.44$)보다 상당히 작았다.

협동성 검증결과

집단의 범주화유형, 협동의 성과유형 그리고 내·외집단에 따른 각 조건별 협동성 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협동성 평정결과를 변량분석해 보면, 집단범주화 유형의 주효과가 있었다[F(1, 176)=12.75, $p < .01$]. 즉 상위범주화 조건($X_1=6.85$)은 하위범주화($X_2=6.37$)보다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협동도를 더 높게 평

<표 2> 각 조건별 유사도 평정의 평균치(SD)

| 성과\집단 | 상 위 집 단 | | 하 위 집 단 | |
|-------|------------|------------|------------|------------|
| | 내집단 | 외집단 | 내집단 | 외집단 |
| 성공 | 6.30(1.48) | 5.54(1.28) | 6.18(1.18) | 5.16(1.10) |
| 실패 | 6.28(1.89) | 5.01(1.23) | 6.38(1.05) | 4.75(1.09) |

<표 3> 각 조건별 협동평정치의 평균(SD)

| 성과\집단 | 상 위 집 단 | | 하 위 집 단 | |
|-------|------------|------------|------------|------------|
| | 내집단 | 외집단 | 내집단 | 외집단 |
| 성공 | 7.29(1.15) | 6.79(1.06) | 7.07(1.05) | 6.28(0.92) |
| 실패 | 6.90(1.29) | 6.42(0.99) | 6.88(1.06) | 5.26(1.04) |

가했다. 성과유형의 주효과가 있었다[F(1, 176)=13.41, $p < .01$]. 또 내·외집단간의 주효과가 있었다[F(1, 176)=83.28, $p < .01$].

한편 내·외집단과 범주화유형 간[F(1, 176)=15.68, $p < .05$], 그리고 내·외집단과 성과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1, 176)=4.29, $p < .05$].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내·외집단과 범주화유형간의 협동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상위범주화 조건에서의 내집단($X_1=7.0$)과 외집단($X_2=6.6$) 간의 편파($X_1 - X_2=0.4$)보다 하위범주화 조건에서의 내집단(평균=6.9)과 외집단($X_2=5.7$)간의 편파($X_1 - X_2=1.2$)가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내·외집단과 성과유형 간에는 성공조건에서의 내집단($X_1=7.1$)과 외집단($X_2=6.5$)간의 편파($X_1 - X_2=0.6$)가 실패조건에서의 내집단($X_1=6.8$)과 외집단($X_2=5.8$)간의 편파($X_1 - X_2=1.0$)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범주화유형과 성과유형 그리고 내·외집단의 세 가지 독립변인들 간에는 이차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났다[F(1, 176)=15.68, $p < .05$].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위 범주화 조건에서는 협동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내·외 집단간 편파감소가 많았지만 하위범주화 조건에서는 협동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내·외집단간 편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중개분석

범주화와 성과유형이 내·외집단 편파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중개분석(multiple regression mediation analysis)을 한 결과를 도기한 것이 그림 1이다. 범주화와 성과유형은 편파의 정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beta = .39$ 와 $\beta = -.32$), 매개변인이 개재되었을 때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beta = -.03$ 과 $\beta = .06$).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집단유형간에 협동적 과제를 포함하는 상황만으로는 집단간 편파감소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편파감소 요인이란 상황과도 큰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Gaertner 등(1990)이 제안하는 범주화효과의 검증과 아울러, 강화이론(Lott & Lott, 1965)이 제안하는 성과변인의 효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험의 결과에서 보면 협동적 과제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상위범주화 조건은 하위범주화 조건보다 편파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협동의 효과가 집단간 경계의 현출성 약화에 따른 결과라는 Gaertner 등(1990)과 Wilder(1986a)의 설명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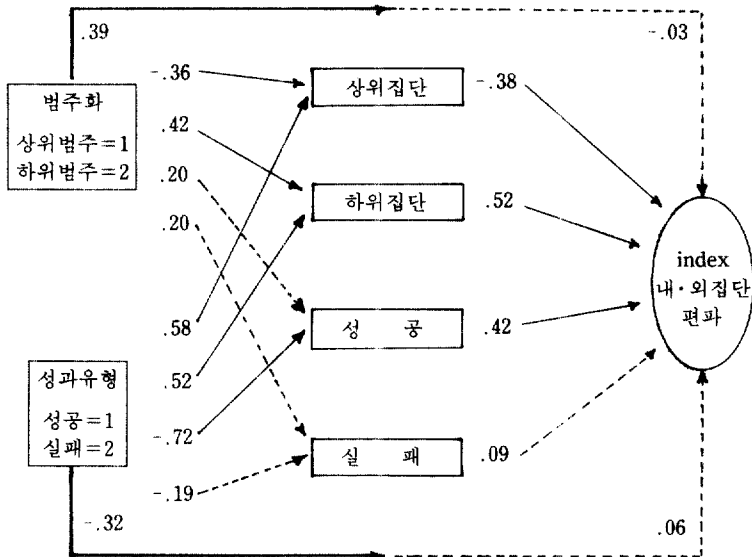


그림 1. 범주화와 성과유형의 효과에 관한 매개분석(굵은선 $p < .05$)

동적 과제수행 후에 주어지는 성과정보도 집단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협동적 과제수행에서 성공조건은 실패조건에 비해서 내·외집단 구성원들 간에 보다 적은 편파를 보였다. 이 결과는 집단간 협동에 의해 감소된 편파가 협동에서 얻어지는 성공적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Worchel 등(197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내·외집단간의 협동성 지각에 관한 편파를 평가한 결과, 하위 범주화 조건에서 협동의 성과유형에 따라 집단편파가 크게 좌우되는데 비해서 상위 범주화조건에서는 협동의 성과유형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던 Worchel 등(1978)의 설명에 따르면, 과제에 실패했을 때 피험자들은 흔히 실패에 대한 비난의 대상을 찾도록 동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동기 때문에 집단 경계가 분명했던 하위범주화조건에서 외집단이 실패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상위 범주화조건에서는 집단의 경계가 모호하여 외집단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집단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집단간 편파감소는 두 집단간의 긍정적인 보상과 관계가 있다는 강화이론(Lott & Lott, 1965)의 설명보다는, 협동적 과제에서의 성과가 집단경계의 현출성과 관련된다는 Brewer(1979)와 Worchel(1986)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는 것은, 첫째, 협동적 과제의 곤란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Gaertner 등(1989)과 Worchel 등(1978)의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록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곤란도가 엄밀히 통제된 과제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의 성공과 실패조건과 함께 통제조건을 포함시켰다면 사회적 정체감 이론이나 사회범주화이론과 강화이론간의 보다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편파의 결과가 내집단 고양의 결과인지 외집단 비하의 결과인지 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넷째, 최소수준의 단계적 집단관계만을 상정하고 있지만, 구조화된 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집단의 협동이 곧 편파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집단간 유

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협동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집단 편파나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진국(1987). 영·호남대학생의 상호간 차이 지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3(2), 113-147.
- 박남석(1991).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은행고객의 결정속성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rewer, M.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2, 307-324.
- Campbell, D.T.(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rocker, J., & Luhtanen, R.(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 60-67.
- Deschamps, J.C., & Brown, R.(1983). Superordinate goals and intergroup conflic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89-195.
- Deutsch, M.(1973).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aertner, S.L., Mann, A.J., Dovidio, J. F., Murrell, A. J., & Pomare, M.(1990). How does cooperation reduce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59, 4, 692-704.
- Gaertner, S.L.,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 (1989). Reducing intergroup: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 239-249.
- Hensley, V., & Duval, S. (1976). Some perceptual determinants of perceived similarity, liking, and correct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59-168.
- Kramer, R.M. (1988). Windows of vulnerability or cognitive illusions? Cognitive processes and the nuclear arms race. *Journal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In press.
- Kramer, R.M., & Brewer, M.B. (1984). Effects of group identity on resource use in a simulated commons dilem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 1044-1057.
- Locksley, A., Ortiz, V., & Hepburn,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discriminatory behavior: Extinguishing the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73-783.
- Lott, A.J., & Lott, B.E. (1965). Group cohesiveness as interpersonal attraction: A review of relationships with antecedent and consequent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64, 259-309.
- Messick, D.M., & Mackie, D.M. (1989).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0, 45-81.
- Miller, N., & Brewer, M.B. (1986). Categorization effects on ingroup and outgroup perception.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209-23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abbie, J.M., & Horwitz, M. (1969). Arousal of ingroup-outgroup bias by a chance win or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269-277.
- Sherif, M., Harvey, O.J., White, B.J., Hood, W.R., & Sherif, C. W.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Oklahoma: University Book Exchange.
- Slavin, R.E. (1985). Cooperative learning: Applying contact theory in desegregated schools. In W. G. Stephan & J. C. Brigham (Eds.),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41, 45-67.
- Stephan, W.G. (1985). Intergroup Relation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ed.), pp. 599-658.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2, 96-102.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Billig, M.G., Bundy, R.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2, 149-178.
- Tajfel, H., & Turner, J.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urner, J.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ur. In E. J. Lawl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Vol. 2, pp. 77-122). Greenwich, CT: JAI Press.
- Wilder, D.A. (1986a). Cognitiv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intergroup contact.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49-66). Chicago: Nelson-Hall.
- Wilder, D.A. (1986b). Social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creation and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L. Berkowitz (Ed.),

-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291-355.
- Worchel, S., Axsom, D., Ferris, F., Samaha, C., & Schweitzer, S. (1978). Factors determining the effect of intergroup cooperation on intergroup attrac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 428-439.
- Worchel, S. (1986). The role of cooperation in reducing intergroup conflict.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288-304). Chicago: Nelson-Hall.
- Worchel, S., Andreoli, V.A., & Folger, R. (1977). Intergroup competition and intergroup attraction: The effect of previous interaction and outcome of combined effor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31-140.
- Worchel, S., Lind, E.A., & Kaufman, K. H. (1975). Evaluations of group products as a function of expectations of group longevity, outcome of competition, and publicity of 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1, 1089-1097.

Effects of Categorization and Outcome Information on Reducing Intergroup Bias in the Cooperative Task Performance

Kwan-Sun Choi and Sang-Su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experimentally the effects of the social categorization and outcome information on reducing intergroup bias in the cooperative task performance. In the first phase of the present study, members of the two groups either wore similar uniforms or different uniforms to distinguish the groups. In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the two groups were combined and worked cooperatively on the tasks. And the outcome of the cooperative endeavor was manipulated so half the groups succeed and half fail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one-group members (superordinate group) showed lower intergroup bias than the separate-two group members(subordinate group). (2) Success at the task increased the elimination of former group identities during intergroup cooperation. (3) The one-groups in the success feedback condition have lower degrees of bias than the separate-two groups in the failure feedback condition.